

국 어

해설위원: 정 채 영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차에 **치다** ② 고기를 **재다**
③ 날이 **개이다** ④ 담배를 **피다**

정답 ②

[해설] '재다'는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라는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한편 '재다'와 '재우다'는 준말과 본말의 관계를 가지는데, '재다'의 어간 '재-'와 '재우다'의 어간 '재우-'에 어미 '-아-'를 연결하여 '재어 놓다/재워 놓다'처럼 표현할 수 있다.

[오답연구]

- ① 치다(x) ⇨ 치이다(○): 무언가를 치는 행위를 한 주체가 주어가 된 문장이라면 "누가 무엇을 치다."처럼 '치다'를 쓰고, 당하는 주체가 주어가 된 문장이라면 "누가 무엇에 치이다."처럼 '치이다'를 쓴다. 여기서는 피동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차에 치이다'로 써야 바르다.
- ③ 개이다(x) ⇨ 개다(○): "호리거나 곳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개다'이므로, '날이 개다'와 같이 쓰는 것이 바르다.
- ④ 피다(x) ⇨ 피우다(○): '피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이고, '피우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이다. '담배를'의 뒤에는,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 '피우다'를 써서, '담배를 피우다'와 같이 쓰는 것이 어법에 맞다.

문 2.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
② 쓱쓱쓱, 명중률, 푸주간
③ 등교길, 늪름하다, 캥충캥충
④ 돌보이다, 거적떼기, 야단법석

정답 ①

[해설] '반듯이, 수나비, 에두르다'는 모두 한글 맞춤법에 맞는 어휘이다.

- 반듯이(○): '반듯이'는 '반듯하게'라는 뜻을 가지는 어휘이다. '한글 맞춤법' 제25항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는 규정에 의하여 '반듯이'로 적는다. 한편, '꼭, 틀림없이'라는 뜻의 '반드시'는 '반듯하다'와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수나비(○):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는 '표준어 규정' 제7항에 따라 '수나비'와 같이 적는다. 한편,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태지, 수평아리'에 한하며, 접두사 '수-'를 붙이는 단어는 '숫양, 숫염소, 숫쥐'에 한한다.
- 에두르다(○): '에두르다'는 "에워싸 둘러싸다."라는 뜻을 가진 어휘로 '에둘러, 에두르나'와 같이 활용한다.

[오답연구]

- ② 푸주간(x) ⇨ 푸줏간(○): '푸줏간'은 '예전에,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의 고기를 끊어 팔던 가게'로, 순우리말 '푸주'와 한자어 '간(間)'의 합성어이다.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므로 '푸줏간'으로 쓰는 것이 바르다.
- 쓱쓱쓱(○): '한글 맞춤법'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가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쓱쓱쓱'으로 표기한다.
- 명중률(○): '한글 맞춤법' 제11항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른’은 ‘열, 른’으로 적는다."라는 규정을 참고하면, '울로' 쓰는 것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국한 시켰으므로, '명중률'로 써야 한다.
- ③ 등교길(x) ⇨ 등굣길(○): '등굣길'은 한자어 '등교(登校)'와 순우리말 '길'의 합성어이다.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하므로 '등굣길'로 쓰는 것이 바르다.
- 늪름하다(○): '한글 맞춤법' 제11항, 불임 1에 따라 제2 음절 이하에서 본음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므로, '늪름하다'로 표기한다.
- 캥충캥충(○): '표준어 규정' 제8항에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

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캥충캥충'으로 굳어진 이 말을 표준어로 삼았다.

- ④ 거적떼기(x) ⇨ 거적때기(○): '한글맞춤법' 제54항 "겹미사 '-대기/-때기'는 '때기'로 적는다."라는 규정에 따라 '거적때기'로 적어야 한다.
- 돌보이다(○): '돌보이다'는 '돌보다'의 어간 '돌보-'에 파동 접미사 '-아-'가 결합된 말이다. 겹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들은 그 어간을 밝히어 적어야 하므로, '돌보이'로 적은 것이다.
- 야단법석(○): '야단법석'은 '한글 맞춤법' 제54항 다만, 한 개 형태소 내부에 있어서도, 'ㄱ, ㅂ' 받침 뒤는 경음화의 규칙성이 적용되는 환경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 3.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를 잘못 제시한 것은?

- ① 지름길 - 捷徑 ② 비웃음 - 苦笑
③ 마름질 - 裁斷 ④ 게으름 - 懈怠

정답 ②

[해설] '비웃음'은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업신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의 뜻을 가진 말로, 이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비소(譏笑)와 조소(嘲笑)'이다. '苦笑(고소)'는 '쓴웃음'을 의미하는 한자어이므로, '비웃음'과 바꿔 쓸 수 없다.

- 譏笑(비소: 험뜯을 비, 웃음 소): 비웃음
嘲笑(조소: 비웃을 조, 웃음 소): 비웃음
苦笑(고소: 쓸 고, 웃음 소): 쓴웃음

[오답연구]

- ① 지름길 - 捷徑(첩경: 빠른 첩, 지름길 경):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려 통하는 길.
③ 마름질 - 裁斷(재단: 마를 재, 끊을 단): 옷감이나 재목 따위를 치수에 맞도록 재거나 자르는 일.
④ 게으름 - 懈怠(해태: 게으름 해, 게으름 태):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

문 4.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굴뚝마를 지나 다산초당이 있는 다산을 오르자면 갑자기 청신한 바람이 답사객의 온몸을 휘감고 돈다. (㉠) 들어서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 자라 초당으로 오르는 길은 언제나 어둡고 서늘하다. 이것도 올봄에 갔더니 높은 데서 지시했는지 대밭도 솔밭도 시원스레 숙아내서 (㉢) 흰해졌는데 그래도 (㉣) 울창했던 것인지를 청신한 공기에는 변함이 없었다.

- 유희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 -

- | | ㉠ | ㉡ | ㉢ | ㉣ |
|-------|-----|-----|-----|---|
| ① 뻑뻑이 | 무성히 | 미처 | 자못 | |
| ② 무성히 | 촛촛히 | 겨우 | 미처 | |
| ③ 촛촛히 | 뻑뻑이 | 위낙에 | 겨우 | |
| ④ 뻑뻑이 | 무성히 | 자못 | 위낙에 | |

정답 ④

[해설] 제시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 뻑뻑이, ㉡ 무성히, ㉢ 자못, ㉣ 위낙에'이다.

- ㉠ 뻑뻑이: ㉠의 뒤에 이어지는 "하늘이 감추어진 대밭"을 근거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사이가 촛촛하게"라는 뜻을 가진 '뻑뻑이'가 적절하다.
- ㉡ 무성히: ㉡의 앞과 뒤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자라서 어둡고 서늘하다고 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는 상태로."라는 뜻을 가진 '무성히'가 적절하다.
- ㉢ 자못: ㉢에는 "숙아내서" 어떻게 "흰해졌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와야 한다. 따라서 "생각보다 매우."라는 뜻을 가진 '자못'이 들어가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다.
- ㉣ 위낙에: ㉣의 뒤에 이어지는 "울창했던 것"이라서 "변함이 없었다."를 근거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어휘를 선택지에서 찾으면, "본디부터."라는 뜻을 가진 '위낙에'가 적절하다.

문 5.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문문의 끝에 마침표나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다.
②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가운뎃점을 쓴다.
③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쉼표를 쓴다.
④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 각 물음의 뒤에 물음표를 쓴다.

정답 ④

[해설]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 ㉠ ·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오답연구]

- ① ‘마침표’는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 물음표 대신 쓸 수 있다. 또한 ‘느낌표’는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쓸 수 있다.
㉡ ·도대체 이 일을 어쩔단 말이나. /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
이게 누구야! / 내가 왜 나빠!
② 가운데점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쓴다.
㉢ ·민수·영희, 선미·준호가 서로 짝이 되어 율놀이를 하였다.
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지역을 예부터 삼남이라 일러 왔다.
③ 심표는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
니다.

말의 성질.

- 明示性(명시성): 두 가지 이상의 색·선·모양을 대비시켰을 때, 금방 눈에 띄이는 성질.
④ ·生成性(생성성):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는 성질.
·死滅性(사멸성): 죽어 없어지는 성질.

문 8.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이빨을 준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
지요.”라 말하리라. 다시 “하늘이 이빨을 준 이유는 장차 무엇을 하게
하러 참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하늘이 먹이를 씹어 먹으라고 한
것이지요.”라 답하리라. 다시 “이빨로 먹이를 씹어 먹게 함은 무슨 까
닭인가?”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의 이치입니다. 세나 짐승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굽혀 땅에 닿도록 해서 먹이를
구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이미 높으니 어쩔 수 없이
목을 길게 만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레도 혹 땅에 닿지 않을가 염려
하여 부리를 길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만
들었다더라면 뜨락에서 굶어 죽었겠지요.”라 답하리라. 내가 크게 웃으
며 “그대가 말한 하늘의 이치는 곧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한다. 하
늘이 이빨을 준 이유가 반드시 구부려서 먹이를 씹게 하려 한 것일진
대 이제 저 코끼리가 쓸데없는 어금니를 가지고 장차 땅에 구부리려
한다면 어금니가 먼저 땅을 터이니 이른바 먹이를 씹는 데 도로 방해
가 되지 않겠느냐?”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코에 의지하면 되지요.”라
말하리라. 내가 “어금니가 길어서 코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
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나으리라.”라 하니 이에 떠들던
자가 처음 주장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던 바를 조금씩
굽혔다.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니 그 코로 말한다면 천하에 적
수가 없다 할 것이나,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말한다면 앞서 이른 하늘의 이치는 아닐 것이다.

— 박지원, 「상기(象記)」—

- ① 코끼리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
② 사람들은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
③ 코끼리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
④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이 하늘의 이치이다.

정답 ②

[해설] 사람들이 익숙한 대상을 통해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려 한다는 것은 제시문의 뒷
부분 “이는 생각의 범위가 미치는 것이 겨우 말, 소, 닭, 개 정도에 머물 뿐이요,
용, 봉황, 거북, 기린 같은 것에는 미치지 못해서이다.”에 나타나 있다. ‘말, 소,
닭, 개’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상이므로, 화자의 물음에 쉽게 답을 하지만, ‘코끼
리’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상이 아니므로 화자의 물음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한다.
이는 사물의 형상이 다양한 것처럼, 사물의 이치도 다양한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이치를 하나의 잣대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을 비판한 것이다.

[오답연구]

- ① 마지막 부분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쳐서 죽이”지만, “코끼리가 쥐를 만나면 코
를 둘 자리가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섰을 뿐이다.”라는 문장을 통해 “코끼리
는 쥐에게나 범에게나 천하무적의 대상이다.”라는 진술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③ 제시문의 정보를 참고했을 때, 필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코끼리가 땅에 구부릴 때
어금니가 땅에 먼저 닿기 때문에 코가 길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금니를 버리고 코를 짧게 하는 편이 낫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금니를
지탱하기 위하여 코가 길어졌다는 진술은 필자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사람들이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더라면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말
한 부분을 통해,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와 같게 만드는 것은 먹이를 구할 수 없게 만
드는 것이고, 이는 만물을 만들 때, 먹이를 구하게 하려는 하늘의 이치와 어긋나게 되
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적절한 진술이 아니며, 필자의 견해와도 관련이
없다.

[박지원, 상기(象記)]

이 글의 제목은 ‘상기(象記)’로, ‘코끼리에 관한 기록’이란 뜻이다. 연암 박지원 일행은
중국 사신행 중 코끼리를 직접 볼 기회를 가졌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잘못 알
고 있는 통념적 인식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코끼리가 범을 코로 죽이면서도 쥐 앞
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상대적 진리 앞에서, 만물의 원리를 하나로만 파악하려고 하는 사
람들의 통념이 잘못되었음을 대화의 방식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문 6.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欲速則不達

—『論語』—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③ 아무리 바빠도 바늘하리 매어 쓰지 못한다.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정답 ③

[해설] ‘欲速則不達(욕속즉부달)’은 일을 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다. 이는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에 나오는 공자(孔子)의 말이다. 이와 뜻이 가장
잘 통하는 속담은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꼭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일을 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아무리 바빠도 바늘하리 매어 쓰지 못한다.”이다.

[오답연구]

- ① 서 발 막대 휘둘러도 거칠 것 없다.
‘1. 서 발이나 되는 긴 막대를 휘둘러도 아무것도 거치거나 걸릴 것이 없다는 뜻으로,
가난한 집안이라 세간이 아무것도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주위에 조심스
러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거러질 것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개 꼬리 삼 년 두어도 황모 되지 않는다.
본바탕이 좋지 아니한 것은 어떻게 하여도 그 본질이 좋아지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뱀새가 황새를 따라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하면 도리어 해만 입는다는 말.

문 7. 다음 글을 읽고 ㉠과 ㉡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일반적으로 ㉠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
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

㉡

- ① 多彩性 規範性
② 動態性 靜態性
③ 模糊性 明示性
④ 生成性 死滅性

정답 ②

[해설] ㉠의 ‘입말’은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
로 변화한다.”라고 하였으므로 ‘動態性(동태성)’과 관련이 있고, ㉡의 ‘글말’은 “급
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고 하였으므로 ‘靜態性(정태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 ㉡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② ‘動態性(동태성)’과 ‘靜態性(정태성)’이다.

- 動態性(동태성): 움직이거나 변하는 성질
·靜態性(정태성): 움직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성질

[오답연구]

- ① ·多彩性(다채성):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어울리어 호화스러운 성질.
·規範性(규범성): 규범이 되는 성질이나 특성.
③ ·模糊性(모호성):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려운

문 9. 다음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 서론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1. 홍보 부족
2. 참여 의식 부족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4. 연결망 구축

IV. 결론

-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정답 ③

[해설] 서론에 나와 있는 “재능 기부 현황”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제시한 후, 본문에 나와 있는 항목 “II.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과 항목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기준으로 글의 줄거리를 잡으면,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가 가장 적절한 글쓰기 전략이 된다.

[오답연구]

- ① 본론의 마지막에 제시된 항목 “III.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한 글쓰기 전략이 될 수 없다.
- ②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문제점으로 삼아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이 개요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글쓰기 방안이다. 그런데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만 맞추는 것은 문제점만 제시했을 뿐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것이 되므로, 이는 적절한 글쓰기 전략이 될 수 없다.
-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인 것은 맞지만, 순서가 잘못되었다. 순서를 바꾸어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를 토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이끌어 내야 적절한 글쓰기 전략이 된다.

문 10.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쓰나미’는 항구를 뜻하는 ‘쓰[津]’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波]’로 이루어진 일본어 합성어이다. 쓰나미는 위협적인 파도를 동반해 일본의 항구 지역에 수시로 타격을 입히지만 신기하게도 같은 시간 먼바다에 나가 있는 어부들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즉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쓰나미를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 날씨가 아주 평온하고 바다도 무척 잔잔했다고 말한다.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끈을 양쪽으로 묶은 다음, 한쪽 끝에서 수직 방향으로 갑작스러운 충격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위로 솟았다가 내려가는 연속적인 움직임이 끈을 타고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간단하게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다.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안에 나타나는 파도는 끈의 끝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다. 끈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처럼, 바닷물도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 쓰나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마지막에 파도가 크게 부서지면서 바닷물

이 땅으로 넘치고, 그중 일부는 원래의 바다로부터 떨어져 나와 물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 ① 쓰나미는 물 자체의 이동보다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② 쓰나미는 태풍과 같이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 ③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다.
- ④ 쓰나미는 일본어 합성어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험적이다.

정답 ④

[해설] 첫 번째 문단에서 “쓰나미는 해안에 나타나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먼바다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가까운 바다보다 먼바다에서 더 위험적이라는 진술은 이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연구]

- ① 두 번째 문단에 “쓰나미의 원리도 바로 이 파동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쓰나미는 파동의 전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첫 번째 문단에 “이는 쓰나미가 일반적인 태풍처럼 특정한 기상 조건 때문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쓰나미가 특정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세 번째 문단에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쪽으로 옮겨 오면서 확대되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쓰나미는 물결의 일렁임이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며 확대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문 11.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함이 **많다**.
- ②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
- ③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
- ④ 노장은 결코 **늑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정답 ①

[해설] 일반적인 동사/형용사 판별 기준에 따르면 현재형 어미 ‘-다/는’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①의 ‘많다’는 ‘많는다(x)’와 같이 현재형 어미가 결합되었을 때 부자연스러우므로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②의 ‘밝으면’ ③의 ‘키우신다’ ④의 ‘늑지’는 모두 동사이다.

[오답연구]

- ② “곧 날이 밝으면 출발할 수 있다.”에서 ‘밝으면’은 ‘밝는다’처럼 ‘-는다/-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밝다’는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이지만, ‘햇빛이 밝게 타오르다’처럼 ‘불빛 따위가 환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형용사이므로, 이를 구별해서 파악해야 한다.
- ③ “노인들은 꽃나무를 잘들 키우신다.”에서 ‘키우신다’는 ‘키운다’처럼 ‘-는다/-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 ④ “노장은 결코 늑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에서 ‘늑지’는 ‘늑는다’처럼 ‘-는다/-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참고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구분 기준	동 사	형용사
의미 차원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냄. • 그가 일어난다 . (동작) • 피가 솟는다 . (과정)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맛이 달다 . (성질) • 꽃이 아름답다 . (상태)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 ‘-는/-다’	○ • 밥을 먹는다 . • 물이 흐른다 .	× • 꽃이 아름답는다 . • 그는 기분이 슬프다 .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	○ • 산을 보는 나	× • 아름답는 꽃
의도, 목적의 어미 ‘-려, -려’	○ • 영화를 보려 한다. • 영화를 보려 간다.	× • 그는 착하려 한다. • 그는 착하려 간다.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	○ • 건우야, 일어나라 . • 건우야, 우리 일어나자 .	× • 건우야, 즐거워라 . • 건우야, 우리 즐겁자 .
진행형 ‘-고 있다’	○ • 그가 가고 있다 .	× • 그녀가 예쁘고 있다 .
의문형 어미	‘-느냐’ 사용 • 밥을 먹었느냐?	‘-냐’ 사용 • 그녀가 예쁘냐?

문 12.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아버님께서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쭙어 보십니다.

정답 ④

[해설] '여쭙다'는 웃어른에게 말씀을 올린다는 뜻으로 객체를 높이는 특수한 동사이다. ④의 문장에서는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므로 '물어보다'를 활용한 '물어보십니다.'를 쓰는 것이 바르다.
 + '물어보다'와 '여쭙어보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합성 동사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연구]

- ① '말씀'은 '말'의 존대어이면서 자신의 말을 낮추는 겸양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을 낮추어 '제 말씀을'처럼 쓴 것은 바르다.
 ② 간접 높임법은 주체에 관련된 신체, 사물, 관계되는 것 등에 대하여 '사'를 사용하는 높임법으로, 결과적으로 그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걱정이 많으시니'는 간접 높임법이 쓰인 옳은 표현이다.
 ③ '당신'은 '그 사람' 자신을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 '당신'을 높이기 위해 높임 선어말 '시'를 사용하여 '아끼시던'으로 쓴 것은 옳은 표현이다.

문 13.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율격에 맞지 않는 것은?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 + 과음보 + 평음보 + 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② 千里에 외로운 쏜만 오락가락 호노매
 ③ 多情도 病人 낭호여 줌 못 드러 호노라
 ④ 님 向호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3음절) + 과음보(5음절 이상) + 평음보(4음절) + 소음보(3음절 이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형식에 맞지 않는 시조는 음절수가 '3-4-3-4'에 해당하는 "人間을(소음보) 도라보니(평음보) 머도록(소음보) 더욱 도타(평음보)"이다.

[오답연구]

- ② 千里(소음보) 외로운 쏜만(과음보) 오락가락(평음보) 호노매(소음보)
 ③ 多情도(소음보) 病人 낭호여(과음보) 줌 못 드러(평음보) 호노라(소음보)
 ④ 님 向호(소음보) 一片丹心(과음보) 이야 가실 줄이(평음보) 이시라(소음보)

참고 [시조의 형식]

(1) 시조의 기본 형식

- ①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구, 4음보, 45자 내외이다. 종장의 첫 어절은 대체로 3음절이 지켜졌고, 둘째 어절은 5음절 이상이어야 했으며, 나머지 구는 한두 음절의 가감이 허용되었다.
 ② 간결하고 균제성 있는 형태미를 갖춘 시조의 형식은 주로 양반층의 애호를 받으며 성장하는데, 조선 후기인 17, 18세기에 이르면 산문정신과 평민 의식의 성장을 바탕으로 기본 시조 형식의 경형성을 깨뜨린 엮시조나 사설시조가 등장한다.

(2) 형식에 따른 시조의 분류

평시조	3장 6구 45자 내외로 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조로, 단형 시조라고도 한다.
엮시조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 중 한 구가 길어진 시조로, 중형 시조라고도 한다.
사설시조	3장 중 2구 이상이 평시조보다 매우 길어진 시조로, 장형 시조라고도 한다.
연시조	초·중·종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를 한 연으로 하여 2연 이상 중첩되는 시조를 말한다.

문 14.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랑이 소리를 높이 질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세요."라고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드러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괴이하며 괴운이 진홍 호호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호호 것이 그믐밤의 보는 숯불빛 같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우호로 적은 회오리밤 호호 것이 붉기 호박 구슬 같고 붉고 통낭호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 ① 혼철 표기가 발견된다.
 ②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된다.
 ③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정답 ③

[해설]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 아래서 'ㅡ'가 'ㅜ'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숯불'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숯불'이 되는데, '불[火]'의 'ㅡ'가 'ㅜ'로 변하여 '불[火]'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원순 모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순 모음화를 반영한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연구]

- ① 혼철은 여러 형태소가 연결될 때에 형태소의 모음 사이에서 나는 자음을 각각 앞 음절의 종성으로 적고 뒤 음절의 초성으로 적는 표기법이다. '물밑줄'에서 '밧'의 종성 'ㅅ'과 '줄'의 초성 'ㅈ'이 거듭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물밧줄'은 혼철 표기임을 알 수 있다.
 ② '붉다'의 어간 '불-'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불기'와 '통낭호다'의 어간 '통낭호-'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통낭호기'를 통해 명사형 어미 '-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믐밤'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그믐밤'이 된다. 현대 국어에서 '의'는 관형격 조사로 선행 체언을 관형어로 만들지만, '그믐밤'에서 '의'는 부사격 조사로 '그믐밤'을 부사어로 만든다. 따라서 '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용법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참고 [현대어풀이]

이랑이 소리를 높이 질러 나를 불러, "저기 물 밑을 보세요."라고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 보니, 물 밑 홍운(紅雲)을 헤치고 큰 실오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眞紅) 같은 것이 촌촌 나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그믐밤에 보는 숯불 빛 같더라. 촌촌 나오더니, 그 위로 작은 회오리 밤 같은 것이 붉기가 호박(琥珀) 구슬 같고, 맑고 통랑(通郎)하기는 호박보다 더 곱더라.

[의유당, 동명일기(東溟日記)]

동명일기는 글순이가 함흥 판관으로 부임해 가는 남편을 따라가서 그곳의 명승고적을 둘러보고 느낀 바를 쓴 기행 수필로, 가치성 일대에서의 뱃놀이 풍류, 귀경대에서 본 월출과 일출 광경, 이성계의 본궁(本宮) 관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우리말을 사용하였고, 여성 특유의 예리한 관찰과 섬세한 표현을 통해 문학성을 확보하였다.

문 15. 다음 편지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문득 선생님 생각이 나서 편지를 씁니다. ㉠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 마다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제자들을 격려하셨고, 저처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다잡아 주셨지요. 선생님의 정성이 얼마나 ㉢ 고마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어쭙잖은 제가 그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가능한 자주 ㉦ 연락드릴게요. 내내 평안하세요.

- ① ㉠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고 ㉡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쓴다.
 ② 높임법을 고려하여 ㉠은 '선생님께서'로, ㉡은 '고마우셨던지'로 바꾼다.
 ③ 의미를 고려하여 ㉢은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은 '되도록'으로 고친다.
 ④ ㉤과 ㉥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각각 '어쭙잖은'과 '연락드릴게요'로 철자를 수정한다.

정답 ③

[해설] ㉢ '마다하셨던'을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에 해당한다. '마다하다'는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다'는 뜻의 동사이다. '마다하다'를 그대로 두면, '선생님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싫다고 하셨다'가 되어 뒤에 이어지는 '선생님의 정성'과 배치되는 진술이 된다. 따라서 '마다하다'의 뒤에 '지 않다'를 넣어 '마다하지 않으셨던'으로 고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 ㉤ '가능한'을 '되도록'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에 해당한다. '가능한'은 형용사 '가능하다'의 관형사형으로 뒤에 명사나 의존 명사가 온다는 특징이 있다. '가능한 자주 연락하다.'는 '가능한' 다음에 '자주'라는 부사가 온 문장으로, '가능한'이 수식할 말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될 수 있는 대로'라는 뜻의 부사 '되도록'을 써서, 뒤에 이어지는 '자주'를 수식할 수 있는 구성으로 고쳐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오답연구]

- ① ㉠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쓰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에 해당한다. 그러나 ㉡ '있을지'는 '있다'의 어간 '있-'에 연결어미 '을지'가 온 것이므로 이를 띄어 쓰려고 한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안이 아니다. 어미 '-(으)ㄹ지'는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로, “은공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와 같이 쓰이고, 의존 명사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말로, “그를 만난 지도 꽤 오래되었다.”와 같이, ‘시간의 경과와 관련된 문맥에 쓰인다. 따라서 ㉠ “있을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 ‘선생님’을 ‘선생님께서’로 고치는 것은 높임법을 고려한 적절한 고쳐 쓰기 방식에 해당한다. 그러나 ㉢ ‘고마웠던지’를 ‘고마우셨던지’로 바꾸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식이 아니다. ㉣의 주어는 선생님이 아닌 글쓴이이므로, 높임 선언말 어미 ‘시-’를 써서 글쓴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은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 ‘어쭙잖은’을 ‘어죽잖은’으로 철자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식이 아니다. ‘비웃음’을 살 만큼 언행이 분수에 넘치는 데가 있다’를 뜻하는 말은 ‘어쭙잖다’이므로 이를 고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 ‘연락드릴게요’를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 ‘-게’를 써서 ‘연락드릴게요’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방식에 해당한다.

문 16. 다음 글과 논증 방식이 가장 가까운 것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 운동선수가 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하듯, 낡은 사고, 인습, 그리고 변화에 저항하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분명한 디딤판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운동선수가 땀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 도전하려는 의지가 수반될 때에 땀을 너머의 새로운 사회를 만날 수 있다.

- ①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 그러므로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 ② 나는 유해한 모든 일을 피하려고 한다.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자레인지가 전자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기이다. 따라서 나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
- ③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은 도관을 통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지름이 큰 도관은 지름이 작은 도관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을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큰 지름의 전선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주말이면 동네에서 크고 작은 문화 행사를 한다.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들이 항상 전시되어 있으며, 대학로의 소극장이나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 쓰인 논증 방식은 ‘유추’이다. ‘유추’는 유개념을 넘어서 확장된 비교로,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시문에서 “운동선수가 땀을 넘으려면 도약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기존의 틀을 벗어나려면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 사이의 공통점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와 논증 방식이 가장 가까운 것은 ③이다. “전선을 통한 전기의 흐름”을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큰 지름의 전선은 작은 지름의 전선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추’에 해당한다.

[오답연구]

- ①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라는 대전제와 “미국 여성은 미국 시민이다.”라는 소전제를 통해 “미국 헌법은 미국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이는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 ②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대전제와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방출하는 대표적인 기기이다.”라는 소전제를 통해 “전자레인지는 유해하므로 이의 사용을 자제하려고 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이는 연역적 추론에 해당한다.
- ④ “동네에서는 문화 행사를 한다.”와 “박물관에는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다.”와 “대학로의 소극장, 예술의 전당 같은 문화 공간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등의 사례를 제시한 후 “문화는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이는 귀납적 추론에 해당한다.

문 17. 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을 없앤다는 건 맛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어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

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걸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 ①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 ②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되는군.
- ③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로 표현되었겠군.
- ④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좋다(good)’라는 낱말의 반의어로는 ‘나쁘다(bad)’는 말 대신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다고 했으므로, ‘좋다(good)’의 반의어를 ‘안 나쁘다(unbad)’로 본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오답연구]

- ① 빅브라더가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다는 것은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 “물론 이걸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를 근거로 알 수 있다.
- ②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은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만 남을 걸세.”를 근거로 알 수 있다.
- ④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리라는 것은 “『좋다(good)』를 활용한 ‘더 좋다(plusgood)’,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 등을 근거로 알 수 있다.

문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時時(시시)로 멀이 드러 北辰(북신)을 보려보며

㉠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느다.

㉡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

… (중략) …

吾王(오왕) 聖德(성덕)이 欲井生(육병생)히 시니라.

㉢ 太平天下(태평천하)에 堯舜君民(요순군민) 되야 이셔

日月光華(일월광화)는 朝復朝(조부조)히 갓거든

㉣ 戰船(전선) 특던 우리 몸도 漁舟(어주)에 唱晚(창만)히 고

秋月春風(추월 춘풍)에 늙히 베고 누워 이셔

聖代(성대) 海不揚波(해불양파)를 다시 보려 히노라.

—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 ① ㉠: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을 볼 수 있다.
- ② ㉡: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 ③ ㉢: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을 볼 수 있다.
- ④ ㉣: 안빈낙도보다 부국강병을 희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의 “吾東方(오동방) 文物(문물)이 漢唐宋(한당송)에 디라마는”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떨어지리마는”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을 우리나라의 문물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

[오답연구]

- ① ㉠ “傷時(상시) 老淚(노루)를 天一方(천일방)의 디이느다”라는 말은 “시국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을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화자의 충정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
- ③ ㉢ “太平天下(태평천하)에 堯舜君民(요순군민) 되야 이셔”라는 말은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시대와 같은 화평한 백성이 되어”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을 평안하고 조화로운 세상을 향한 화자의 바람으로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

참고 [현대어 풀이]

때때로 머리를 들어 임금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시국을 근심하는 늙은이의 눈물을 하늘 한 모퉁이에 떨어뜨린다.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의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뒤떨어지리마는 (중략) 우리 임금님의 성스러운 덕이 너희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시느니라. 태평스러운 천하에 요순시대와 같은 화평한 백성이 되어 해와 달 같은 임금님의 성덕이 매일 아침마다 밝게 비치니, 전쟁하는 배를 타던 우리들도 고기잡이배에서 저녁 무렵을 노래하고, 가을 달 봄바람에 배가를 높이 베고 누워서 성군 치하의 태평성대를 다시 보려 하노라

[박인로, 선상탄(船上歎)]

이 작품은 '태평사'와 더불어 조선 후기 전쟁 문학을 대표하는 가사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도 아직 전쟁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은 부산진에 통주사(統舟師)로 내려온 작가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의 특징은 '배'를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왜적이 타고 온 '배'에 대한 원망에서 시작하여, '배'가 있음으로써 풍류와 흥취를 느낄 수 있음을 제시한 뒤,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쟁의 비애를 극복하고 고기잡이배를 타고 강호가도를 즐기겠다고 하며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염원으로 끝을 맺고 있다.

문 19.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커미션(commission) ㄴ. 콘서트(concert)
 ㄷ. 컨셉트(concept) ㄹ. 에어컨(←air conditioner)
 ㅁ. 리모콘(←remote control)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정답 ②

[해설] 영어를 한글로 적을 때에는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이 발음을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외래어 표기법 제2장), '영어의 표기 세칙'(외래어 표기법 제3장)에 비추어 표기를 정한다. ② 'ㄱ. 커미션', 'ㄴ. 콘서트', 'ㄹ. 에어컨'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이다.

[오답연구]

- ㄷ. 컨셉트(x) ⇒ 콘셉트(○)
 ㅁ. 리모콘(x) ⇒ 리모컨(○)

문 20.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농업박물관 앞뜰에는 가을이 한창입니다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벼의 한살이를
 일러주던 한 아버지는 그 허수아비가
 지키는 참새때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허수아비가 왜 진짜 허수아비인지도
 말해주지 않았지요

— 이문재, 「농업박물관 소식」 —

(나)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 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 붙은 아원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 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 문태준, 「가재미」 —

(다) 싸리재 너머
 비행은 뒀다

 붉은 발고랑에서 허리를 펴며
 호미 든 손으로 차양을 만들며

 남양댁
 소리치겠다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몬다

— 윤제림, 「공군소령 김진평」 —

(라)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지만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
 수십 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갈대였을까
 갈대같이 말라서 쓰러져 죽고 마는
 아무 생각 못 하는 개미떼들이었을까
 그 갈대를 꺾어서 응접실을 치장하고
 생각하는 갈대답게 아프리카를 본다

— 마중기, 「아프리카의 갈대」 —

- ① (가)는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② (나)는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다)는 '비행기'를 소재로 '남양댁'과 대화를 주고받는 화자의 욕망이 그려져 있다.
 ④ (라)는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

정답 ④

[해설] '개미떼'는 '아프리카 한복판 가뭄에 굶어 죽은/수십만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를 “개미떼로 비유될 수도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이 그려져 있다.”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다. 이 시는 인간을 일컬어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만, 이 갈대들은 '개미떼'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생각 없는 갈대'였음을, '생각하는 갈대'와 '생각 없는 갈대'의 대조적인 상황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오답연구]

- ① (가)에 제시된 “어린 아들에게 고개 숙인 벼의 한 살이를/일러주던 한 아버지”를 통해 화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관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아버지'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 제시된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를 통해 화자는 자신을 가재미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를 통해 고단했던 그녀의 삶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재미'에게 질문을 건네면서 화자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에 제시된 “저기 우리 진평이 간다/우리나라 비행기는 전부 진평이가 몬다”를 통해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남양댁 소리치겠다”를 통해 상황을 가정하여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행기'를 소재로 한 것은 맞지만 '남양댁'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화자의 욕망을 표현한 것도 아니므로, 이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